

충남경제교육센터, 중등교사 경제직무연수 성료

충남발전연구원 내 충남경제교육센터는 지난 8월 1일부터 4박 5일간 천안상록리조트에서 열린 『대전·충남 중등교사 경제직무연수』를 마치고 5일 수료식을 가졌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직무연수는 충남 지역 중등교사 30여명을 대상으로 신문을 활용한 경제교육, 지역경제의 이해, 효과적인 강의 전략 등의 전문가 강의를 비롯하여 교사가 직접 참여하는 분입토의 등 이론과 실무를 겸한 교육 일정으로 채워졌다.

또한 금번 연수에는 충남의 대표적 기업지원 기관인 '충남테크노파크'와 '영상미디어센터' 방문을 통해 현장 중심의 지역경제를 체득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었다.

수료식과 함께 지역경제특강을 가진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장은 "학생들은 경제생활을 지식으로써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특히, 지역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천이 강조되는 만큼, 연구원에서도 이러한 취지를 살린 다각적인 경제교육을 확대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경제교육센터는 올 상반기에만 교사 및 학생, 주부, 노인, 다문화가정 등 약 3,000여명을 대상으로 생활과 밀접한 경제교육을 꾸준히 가졌으며, 하반기에는 상대적으로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도서·산간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경제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생태연구부 정옥식 박사, 3년 연속 세계인 명사전 등재



야생조류 보호관리 전문가인 충남발전연구원 환경생태연구부 정옥식 박사(40세, 사진)가 최근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 2011년판에 등재되었다.

또한 미국인명연구소(ABI)로부터 '2011년 아인슈타인상 수상자(Albert Einstein Award of Excellence for 2011)'로 선정됨과 동시에

연구소 학술위원으로도 뽑히는 등 3년 연속 세계인명사전에 등재되는 경사를 맞았다.

정옥식 박사는 도요새 이동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기후변화와 관련한 조류 생태 변화 및 조류 기생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충남도내 비오투지도 및 생태네트워크 구축 연구를 맡고 있다. 특히 생태분야에서는 1년에 1편도 게재하기 어렵다는 국제학술논문을 최근 1년간 5편(곤줄박이의 고도별 금이울 변화, 미국 조류학회, 2011 외)을 게재하는 등 왕성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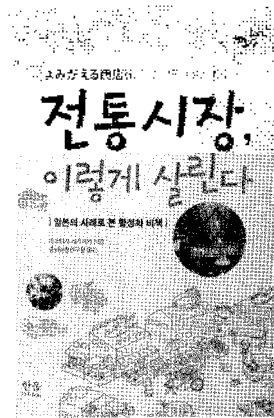
연구원에서 '새 박사'로 알려진 정옥식 박사는 경남 진주 출신으로 서울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이미 지난 해 세계 3대 인명사전에 2년 연속 모두 등재되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바 있다.

전통시장연구회, 「전통 시장, 이렇게 살린다」 펴내

“일본 전통시장은 지금까지의 정부보조금 지원방식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 이제는 상인과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마치즈쿠리)에서 찾아야 한다.”

최근 충남발전연구원 전통시장연구회(회장 권영현)가 펴낸 “전통시장, 이렇게 살린다”에서 저자인 ‘미쓰하시 시게아키’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전통시장의 조각은



결속력이 느슨하고, 오히려 일본보다 더 보조금에 의존한 불리적 사업에 치중하고 있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의 참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 책은 최근 20여년간 쇠퇴일로를 걸어온 일본의 상점가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를 주제로, ‘인간력’, ‘지역운영력’, ‘지역사회민착형’, ‘관광산업력’, ‘창조력’ 등 다섯가지 힘에서 그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했으며, 이를 활용한 12개 상점가의 성공 사례를 통해 풀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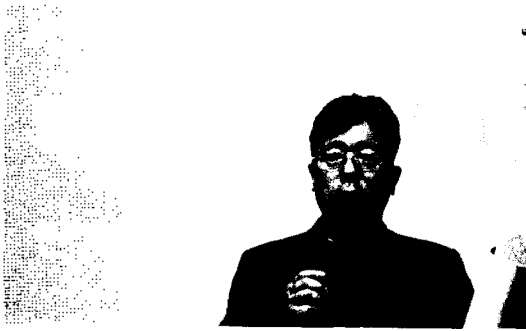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장은 “대형마트를 비롯한 거대 유통망에 밀려 좀처럼 희생의 기미를 찾지 어려운 우리 지역 전통시장을 살리기 원하는 상인 등 이해관계자, 주민 등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전통시장 이렇게 살린다(미쓰하시 시게아키 지음, 충남발전연구원 옮김, 한울, 2만원)〉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활동 눈에 띈다

-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 및 기반 조성 과제도

지난 2월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충남발전연구원 내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성공적



인 운영사례로 인식되면서 (예비)사회적기업, 관련단체들의 교육과 컨설팅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7월 28일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센터장 송두범, 이하 '사회적경제센터') 측에 따르면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과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마을기업 발굴 및 지정을 위해 NGO, 영농조합법인, 자활공동체, 마을공동체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및 상담·컨설팅을 180여 차례나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 및 컨설팅은 현장조사는 물론 워크숍, 전화, 이메일, 사회적경제센터 방문 고객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사회적경제센터에서는 지난 3월부터 충남 사회적경제의 이해증진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충남사회적경제연구회"를 창립하고 현재까지 총7회에 걸친 연속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회적경제센터의 노력이 대외적으로 알려지면서 센터운영 사례에 대해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자치단체와 연구기관 등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사례발표 기회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한편, 올해 2차례에 걸친 공모결과,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41개, 마을기업 26개가 지정된

에 따라 작년부턴 현재까지 58개 충남형 예비 사회적기업, 32개 마을기업 등 총90개가 지정되었다.

사회적경제센터 관계자는 "올해 충남형 예비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지정은 마무리 되었으나,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일자리창출 사업 공모에 착수할 예정"이라면서 "공무원과 도민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과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에 대한 교육을 더욱 확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강화하는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걸음마 단계인 '사회적경제센터'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송두범 사회적경제센터장은 "사회적경제는 기존 충남지역 경제발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역의 내발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충남도정의 핵심시책으로 도입되었다,"고 언급하면서 "충남도정의 주체인 충남도 및 시·군, 의회, 연구원, 지역기업, 학교, 지원센터 등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사회적경제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1년도 상생협력· 갈등관리 충남포럼 현 장간담회 개최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이하 '충남포럼')은 “서해안권포럼”과 공동으로 7월 22일 당진 신성대학교에서 “당진군 동부화력발전소 갈등의 합리적 해법 모색”이라는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당진군 동부화력발전소의 건설 갈등은 2010년 2월 동부그린발전소가 대산지방해양항만청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사전환경성 검토서 초안을 제출하면서 사업자와 주민간 대립으로 표출되었다.

사업자 측에서는 국내 최대이자 최초의 민자 발전사업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로 지역경제 효과가 명료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측 주민들은 화력발전 건설입지 및 대기오염물질과 송전선로로 인한 문제로 삶의 질 저하가 우려되어 사업철회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이 현안에 대해서는 중재기관은 없고 대립기관만 존재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날 현장간담회는 사업과 관련한 찬성측, 반대측의 인사들이 참여하여 상호입장 및 의견을 확인하는 자리로, 갈등표출의 근저에 공유하는 원인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참석한 각 대표자들은 금번 회의를 계기로 향후 상호소통 공간을 창출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2011 대한민국인재상” 충남지역 심사회 실시

충남발전연구원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는 8월 17일 충남발전연구원 에서 도내 대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한민국 인재상」추천을 위한 지역심사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심사회에서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접수된 후보 27명(대학생 13명, 고등학생 14명) 중 15명을 중앙추천 후보자로 선발 및 추천하였으며, 9월중 면접을 거쳐 오는 11월 고등학생 3명, 대학생 2명이 최종 선발된다. 대한민국 인재상 선발은 전국적으로 고등학생 60명과 대학생 40명 등 총 100명을 선발한다. 이 중 80명은 지역별 인구요인 등을 고려 시·도 단위 선발인원으로 배정하고, 20명은 시·도 단위 선발에 최종 포함되지 않은 후보자 중 총점 상위자, 중앙심사위원회 자체 추천자 등을 대상으로 전국단위에서 선발한다.

한편, 최종 수상자로 선정되면 대통령 상장 및 장학금(3백만원)을 수여받게 되며, 국내외 석학 및 역대 인재상 수상자 등과의 만남을 통해 창의역량 및 글로벌 리더십 함양을 위한 연수기회도 갖게 된다.

대상으로 전문 교육과정이 진행되어, 지역의 다양한 계층들이 충남 부여군 백제문화단지 소재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백제문화 관광인력 양성사업” 교육프로 그램 운영

충남발전연구원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에서는 8월 19일 부여롯데리조트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시행하였다.

이 교육프로그램에는 충남발전연구원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연구진과 청양대학교 사업단, 부여롯데리조트 관계자와 30여명의 교육생들이 참석하였다. 여기에서는 관광리조트의 이해, 관광서비스 교육, 충남관광자원 교육, 각종 안전교육, 그리고 현장실습이 병행되었다.



또한 교육은 지역대학생 및 전문계고교생을